

# 화장품 성분 주의사항 '깨알', 규정 있으나마나

‘5포인트 이상 기준으로 거의 읽기 어려워... “전성분 적으면 뭐하나”



화장품 용기 및 포장상자에 표기하는 ‘성분 및 주의사항’의 글씨체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아 형식적인 표기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성분표시제’에 따라 모든 화장품은 포장 용기에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성분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제품의 브랜드와 광고성 문구는 읽기 쉬운 큰 글씨로 표기하면서 소비자 보호 사항에 해당하는 성분과 주의사항은 ‘깨알’로 적고 있었다.

지난 3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시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13개 사 19개 제품을 임의 조사한 결과 평균 성분 글자 크기가 1mm, 주의사항 크기가 1.1mm에 불과했다. 성분이나 주의사항 글자의 크기가 1mm도 채 되지 않는 ‘깨알글씨’ 제품도 9개에 달했다.

‘카밀 핸드 앤 네일 크림 인텐시브’ 핸드크림은 작은 포장 용기 안에 제품 이름과 성분, 주의사항 등을 다 적다 보니 가장 큰 글자가 0.8mm에 불과했으며 주의사항 등은 크기가 0.7mm였다. 성분 및 주의사항 글자가 가장 큰 것은 ‘식물나라 꽃물 에센스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으로 1.8mm에 달했다. 핸드크림, 헤어에센스, 미스트 등 용기가 작은 화장품에 적힌 글씨가 작았지만 용기

에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알글자로 표기한 제품도 많았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아르간 오일 극손상해어 샴푸’는 제품 효능 등을 설명하는데 용기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놓고 주의사항은 0.8mm 크기로 빼곡하게 적어놨으며 ‘해피バス 내추럴 정말 순한 타입 바디워시’도 깨알글씨로 표기하고는 공간을 남겼다. 아모레퍼시픽의 ‘해피バス 정말 순한 바디밀크’ 450ml도 제품 설명 등을 다 적고도 공간이 충분히 남았지만 성분과 주의사항을 깨알글자로 표기하고 있었다. 애경의 ‘케라시스 볼륨 클리닉 샴푸 플러스’는 제품 특징을 강조하는 공간이 성분 및 주의사항의 두 배에 달했다. 심지어 용기의 색과 글자색이 비슷해 제대로 구별이 가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아르간 에센셜 딥 케어 헤어팩’은 투명한 갈색 바탕의 용기에 진갈색 글씨를 써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 ‘전성분 표기’ 있으나마나

이 때문에 20~30대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정도지만 40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 ‘보이지 않을 정도’라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의약품 포장지에 성분 및 설명은 6포인트 이상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40대 이상은 가독성이 떨어져 읽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2008년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됐지만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화장품 포장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르면 ‘화장품 성분의 글자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고 표기하고 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나마 별다른 조항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글자 크기 기준이 6포인트라 이를 기준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화장품 성분은 더 작게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측 역시 “작은 제품 용기에 모든 성분 및 주의사항을 적기 위해서는 글씨가 작아질 수 밖에 없다”며 “성분 표시를 크게 하기 위해 제품 용량을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반박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당초 제품의 성분이나 부작용 등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규로 규정한 것이지만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기입’하는 것에만 급급하다”며 “소비자가 제대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자발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화장품 용기 제목/성분크기 등 표기 현황

브랜드명	제품명	제목크기	성분크기	주의사항
아이오페	아이오페 에어쿠션 XP	3.0	1.2	1.2
	닥터자르트 너리싱 뷰티밤	1.5	1.2	1.2
닥터자르트	닥터자르트 더마 액스퍼트 품	1.5	1.2	1.2
	해피バス 정말 촉촉한 바디오일	2.2	1.0	0.9
아모레퍼시픽	해피バス 내추럴 정말 순한 타입 바디워시	2.7	0.9	1.0
	카밀 키릴 핸드 앤 네일 크림 인텐시브	0.8	0.8	0.7
한국파엔지	극손상 케어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2.2	1.2	1.2
CJ올리브영/제닉	식물나라 꽃물 애센스 하이드로겔 마스크	2.5	1.8	1.8
에프라니	훌리카홀리카 데일리 가든 알로에 클렌징 품	2.0	1.0	1.0
	과일나라 생기가득한 석류 딥 클렌징 품	1.9	0.9	0.9
웰코스	수분기득한 블루베리 핸드크림	2.1	0.9	0.9
	리엔 자연비책	2.2	1.0	1.0
LG생활건강	온디바디 촉촉한 체리 블라썸 바디로션	2.8	1.1	1.1
	비욘드 네이처 디펜스 컨디셔너	0.8	0.8	0.8
	셀럽 오리엔탈 피오니 딥 샴푸	2.1	1.1	1.1
네이처리퍼블릭	아르간 오일 극손상해어 샴푸	1.8	1.1	0.8
애경	케라시스 볼륨 클리닉 샴푸 플러스	3.0	1.1	1.1
고운세상	하이드라 인텐시브 스킨 미스트	1.6	0.8	0.8
에이블씨엔씨	미사 수퍼 야쿠아 아로마 딥씨워터 미스트	1.5	0.8	1.5
평균		2.0	1.0	1.1

출처: 각 사(단위: mm)



▲ 왼쪽부터 ‘카밀 핸드 앤 네일 크림 인텐시브’, ‘비욘드 네이처 디펜스 컨디셔너’, ‘해피バス 내추럴 정말 순한 타입 바디워시’.



▲ 대용량으로 제품 용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분이나 주의사항을 깨알글씨로 표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피バス 정말 순한 바디밀크’, ‘케라시스 볼륨 클리닉 샴푸 플러스’.